



Contact

40 Todang-ro 12beon-gil, Deogyang-gu, Goyang - 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Website / Tel

<http://www.lindenbaumschool.com>
<http://www.thelindenbaum.org>
☎ 031) 973-3390

THE LINDENBAUM JOURNAL. EPISODE 1

OUR STORY

‘더 린덴바움 저널 The Lindenbaum Journal)’은, ‘린덴바움 아카데미’와 ‘린덴바움 뮤직페스티벌’에 얽힌 생생한 현장 스토리와 경험담을 ‘린덴바움 공식 웹사이트 (www.lindenbaumschool.com)를 통하여 들려드리는, ‘린덴바움 공식 웹 매거진 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린덴바움 저널’을 통해 매주 ‘린덴바움 아카데미’ 및 ‘린덴바움뮤직페스티벌’의 참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소중한 후기와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린덴바움 저널’의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공식 이메일 (lindenbaumschool@gmail.com)’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혀주시면, 신청자분의 메일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저널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EDITOR SAYS

후덥지근한 ‘여름’이 시작되고, 아이의 발전을 위한 ‘황금시간’인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린덴바움 저널 (Lindenbaum Journal)’에서는 돌아오는 8월, <2018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 (8.6-8.12)> 개막에 앞서, 지난 <2017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한 특별한 감흥으로, 이번 2018년도 페스티벌 참가까지 결심하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연을 접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Contact

40 Todang-ro 12beon-gil, Deogyang-gu, Goyang - 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Website / Tel

<http://www.lindenbaumschool.com>
<http://www.thelindenbaum.org>
☎ 031) 973-3390



EPISODE 1

“ Q. 먼저 자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열 아홉 살로 ‘채드윅 국제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린덴바움 유스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맡고 있어요.
악기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쯤 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Q. 보통 자녀에게 악기교육을 시킨다 하면 ‘피아노’를 많이 시키기 마련인데,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취미로 배운다는 것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분께서 ‘트럼펫’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비교적 체격도 좋고 폐활량도 좋은 편이어서 주변에서 ‘트럼펫’을 해 볼 것을 추천했고, 해 보니 잘 맞아서 지금까지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 Q. 그렇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악기 연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악기교육을 시키시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지금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악기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아이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는 오케스트라단도 없었고 학교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나 계기가 따로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미국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곳에선 학교마다 다양한 악기 경험 및 1인 1악기의 음악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당시에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서 ‘외국 학교에선 음악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선배 어머니들의 조언도 참고하며 아이에게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하나쯤은 배울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EPISODE 1

“

Q. ‘악기 연주, 즉 음악 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시기에 남자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다양하지만, 많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악기 연주를 통한 음악 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연습하면서 자기 개발과 자아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함께 연주하면서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배려와 인내심을 배우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교육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의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

Q. 사실 ‘음악교육의 효과’에 대한 입소문을 타고 최근 정말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른 음악 교육 프로그램과 ‘린덴바움 아카데미’, ‘린덴바움 페스티벌’의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린덴바움 아카데미’와 ‘린덴바움 페스티벌’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악기 비전공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국내외 다양한 오케스트라 구성원들 및 아티스트들과 함께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비전공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양질의 음악 교육과 멘토링 및 큰 연주기회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보단 혼자 무언가에 몰두하기를 좋아했던 저희 아이도 ‘린덴바움 아카데미’와 ‘린덴바움 페스티벌’을 경험함으로써 단원으로서의 소속감과 하모니의 중요성을 체감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그 과정이 노력이 필요한 힘든 일이지만 지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이가 적극성을 갖고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이 스스로 큰 공연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그 결과 자존감과 성취감이 향상되어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할 기회라는 측면에서 ‘린덴바움 아카데미’와 ‘린덴바움 페스티벌’ 프로그램은 저희 아이에게 정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이어받아서 저희 ‘둘째 아이’도 형이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린덴바움’ 프로그램에 곧장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린덴바움’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은?

A. ‘린덴바움 아카데미’와 ‘린덴바움 페스티벌’은 저희 두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주고 있는 활동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자기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러한 귀중한 경험과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Contact

40 Todang-ro 12beon-gil, Deogyang-gu, Goyang - 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Website / Tel

<http://www.lindenbaumschool.com>
<http://www.thelindenbaum.org>
☎ 031) 973-3390

